



[산업] 'TV반세기' 삼성 QLED 8K 핵심기술 설명회 05



Economy

코스피	2177.05 (0.00)	코스닥	728.74 (0.00)
금리 (미국 3년)	1.79 (-0.02)	환율 (원/달러)	1123.90 (-0.20) (8일)

실업급여 6256억 역대 최대 17만명

고용부 '2019 1월 노동시장 동향' 작년 같은기간 보다 39% 증가 경기둔화로 건설업 5000명 ↑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설명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월간구직급여(실업급여)지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둔화로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구직급여도 늘어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1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1만9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509억원 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8월 지급액의 6158억원 보다도 많은 액수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다 고용 사정이나 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000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000명씩 증가했다.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

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2만 8000원(2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3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280만8000명 보다 50만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53만 3000명 증가 이후 83개월 만에 5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9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늘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방송·통신 무한경쟁 속으로

LG U+, CJ 인수 가시화 SKT-KT의 반격 관심

5G시대, 방·통 지각변동 글로벌미디어 국경 사라져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손잡은 데 이어 CJ헬로 인수를 가시화하며 유료방송 재편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번주 이사회를 통해 CJ헬로 인수에 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를 전량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선제적 움직임으로 SK텔레콤, KT 등 나머지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방송·통신 간 융합으로 생존을 건 콘텐츠 대전이

<유료방송 점유율>

구분	사업자	시장점유율
SO	CJ헬로	13.02%
	티브로드	9.86%
	딜라이브	6.45%
	CMB	4.85%
	현대HCN	4.16%
IPTV	KT	20.67%
	SK브로드밴드	13.97%
	LG유플러스	11.41%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 상반기 기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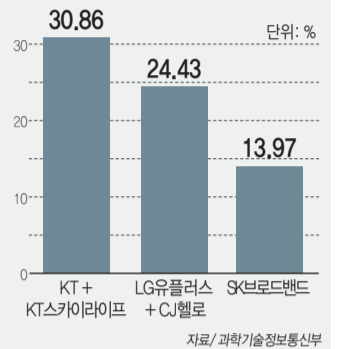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SK텔레콤 계열의 SK브로드밴드를 뛰어넘어 유료방송 사업자 2위를 차지하게 된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달리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공정위의 승인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요청이 다시 들어오면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움직임으로 그간 상황을 관망하던 KT와 SK텔레콤도 M&A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딜라이브, 티브로드, CMB, 현대HCN 등 케이블TV 업체들이 잠재적인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KT는 딜라이브에, SK텔레콤은 티브로드 등을 인수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이후 점유율 변화 예상치



이러한 방송·통신 간 융합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실감형 콘텐츠가 새 수익모델로 부상되고,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때 '황금알을 낳던 거위'였던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OTT), 인터넷TV(IPTV), 결합판매 등으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인구절벽과 고령화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구 문제는 고용과 성장에도 악재로 여겨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생산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연령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679만6000명으로 2017년보다 6만3000명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텀블러 놀이터(왼쪽)와 노인들로 붐비는 한 공원. /연합뉴스

포항 앞바다서 규모 4.1 지진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10일 낮 12시 53분 38초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났다.

정확한 위치는 북위 36.16도, 동경 129.90도이며 발생 깊이는 21km다.

이어 오후 2시 12분 38초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45km 해역에서 규모 2.5, 최대 진도 I의 지진이 났다. 발생 위치는 북위 36.16도, 동경 129.85도이며 깊이는 21km다.

기상청은 이 지진이 앞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으며 이로 인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규모 4.1 지진과 관련해 기상청은 처음에는 포항 북구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난 4.0 규모로 파악했다가 발생 위치와 규모, 시각을 다시 측정해 발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평소보다 규모가 크다"며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기는 하나 육지와 50km 정도 거리가 있어서 아직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 "규모가 6.0에 미치지 않아 해일(쓰나미)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진은 계속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첫 해 수수료 50%선 낮춘다”

90%→50~70% 하향조정 보험연구원 보고서 과한규제... 판매부실 우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가 현행 90%에서 50~70%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판매수수료 규제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낮아진 보수 체계에 따라 상품 판매 건수만 늘리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의 중개인·설계사가 판매한 금융상품의 가치, 규모에 비례해 지급된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금융업에서 판매수수료는 보편적"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은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

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당한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주요국 보험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해 수수료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에 달한다. 이는 미국(37.2%)이나 영국(44.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수수료만 챙기고 퇴사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일명

'떡튀' 설계사가 양산돼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야 계약'이 늘어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해 판매수수료 지급 상한 비율을 전체 수수료의 90%로 제한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서 보험사가 7년에 걸쳐 분할 상각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주요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조정해 나갔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9@